



기획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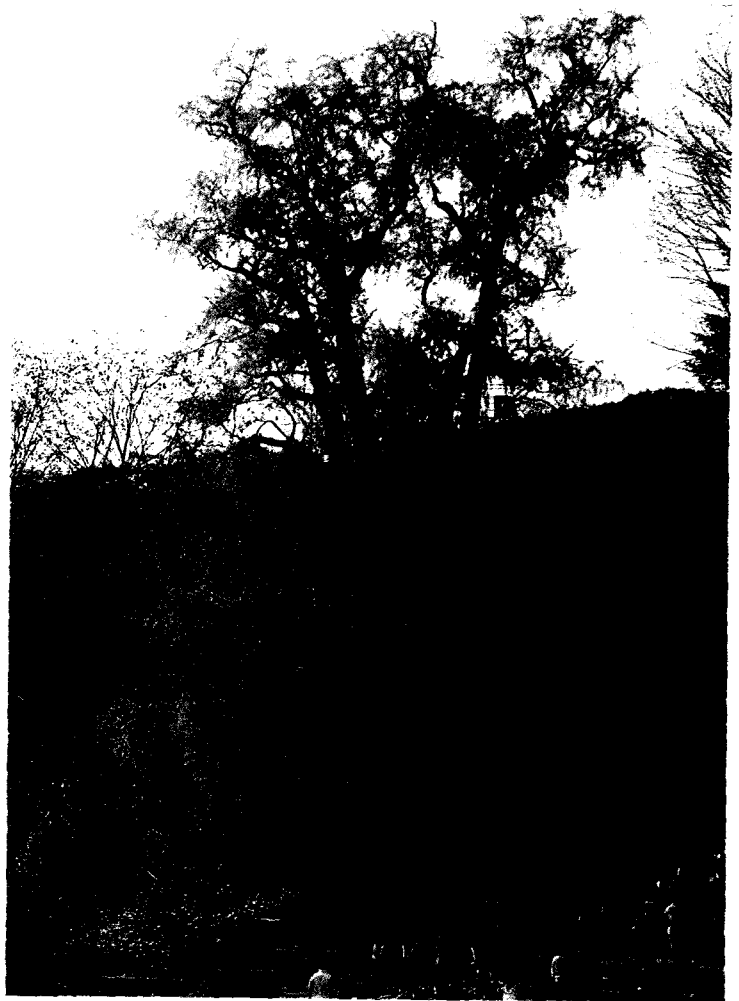
임 경 빈 / 아카시아연구회장

조경수목 산책 (X) —은행나무—

1. 은행나무의 이름

은행나무는 한자로는 은행(銀杏)이라 쓰고 영어 명칭으로 silver-apricot라 쓰는 일이 있다. 영어 명칭은 은행을 그대로 직역한 것으로 은행 열매가 살구에 무척 닮아 있으나 그 표면에 은빛나는 납질의 흰 가루를 폭 덮고 있어서 보기에 은빛나는 살구라는 뜻이다. 이것이 은행이란 말의 출처로 보아야 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은행의 단단한 종피(種皮)의 색깔이 은빛이고 그 모양이 역시 단단한 살구 속씨에 닮았다는 인연을 결부시켜 설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일단 앞의 것을 취하고 싶다.

은행으로 쓰면 한문자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동질성, 소위 아이덴티티(identity)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사람들은 은행보다는 압각수(鴨脚樹)를 더 통용하



▲경기도 용문사의 은행나무. 1991. 11. 2.

는 명칭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 잎의 모양이 오리발에 닮은 데에서 얻어진 것이다. 은행이나 압각수나 모두 다른 어떤 것에 닮음을 찾아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이쥬』로 말하고 한자로는 一葉으로 쓴다. 생각컨대 은행나무 잎의 신기함과 다른 나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구조에 이끌린 이름으로 생각한다. 은행잎은 무연가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손수(公孫樹)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설명을 들어 보면 이 나무는 결실 상태에 이르면 긴 세월을 요하고 말하자면 할아버지 때 심은 나무는 손자 때에 가서 결실한다는 생리적 특성을 포착한 이름이라 한다.

영어 명칭은 『은행』을 일본말 식으로 발성시킨 킹고(ginkgo)가 일반적 명칭이고 때로 maidenhair-tree 라고도 한다. 고사리의 일종에 maidenhair-fern 말하자면 처녀머리 고사리라는 것이 있고 그 잎이 아름다우며 모양이 은행나무 잎에 크게 닮아 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본 그 곳 사람들은 곧장 메이던 헤어 펀(maidenhair-fern)을 연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메이던 헤어츄리로 이름 붙이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래 저래 은행나무는 명칭으로서 한몫 해 보는 자리에서 있다.

은행나무는 나자식물(裸子植物)이므로 구조상으로 열매(fruit)

를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자(seed)이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행 열매로 말한다. 식물학적인 원칙을 무시한 표현이나 잘못된 것도 알고 쓰면 큰 탈이 없을 것로 생각한다.

2 은행나무의 분포문제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천년을 넘는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야생상태의 은행나무는 이때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나무는 사람이 심어 주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그 곳에 나타나서 자란 것이 못된다. 이것이 은행나무의 독특한 특성으로 다른 나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날 식물학자들은 어딘가 지구상에 은행나무의 원산지 즉 야생 상태의 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탐험대들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그 야생지가 중국에 있을 것으로 보고 탐험대들은 사천성(四川省) 또는 운남성(雲南省) 같은 오지를 답사했으나 야생지를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 양자강 하류 절강성과 안휘성의 경계를 이루는 천목(天目)산맥 해발고 약 2000m의 지점에서 야생지가 발견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곳에서 은행나무는 퍼져서 오늘날 지구상 곳곳에 심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나무도 과거 중국에서 들

어 온 외국 수종으로 말할 수 있다. 일본도 다름이 없다.

은행나무는 견딜 수 있는 환경 인자의 폭이 대단히 넓다. 가령 온도로 말하더라도 따뜻한 중국의 남단 광둥(廣東)에서도 자라다가 하면 매우 추운 곳 만주 심양(沈陽)에서도 지낼 수 있다. 만주 심양의 절대 최저 기온이 약 -38℃인데도 건강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어릴 때 보호조치를 취해 주었을 지도 모른다. 은행나무의 이러한 성질을 적응력이 강하다고 표현한다.

적응력 특히 온도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보니 오랜 세월을 살아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은행나무를 살아 있는 화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은행나무가 길고 긴 지질연대를 이어 살아 왔고 그들의 다양한 선조들이 화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주대륙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오직 화석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있다.

3 살아온 역사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약 3억 5천만년전 고생대의 석탄기 초에 지구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때의 은행나무의 몸은 땅속에 묻혀서 석탄과 석유를 만드는 일부분도 되지 않았을까? 지구상에 있는 나무치고 은행처럼 오래 살아 온 것은 따로 없다.

그 중 특히 중생대 때 그 중에서도 쥐라기 때 가장 번성한 이력

을 가지고 있다. 쥬라기 때라 하면 공룡의 전성시대로서 거대한 나무는 거대한 동물과 짝이 되어 지구의 표면에 균립할 수 있었다. 큰 몸집의 공룡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를 피하자면 높고 높은 키의 은행나무가 아니었다면 무척 괴로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때 은행나무는 지구 표면 어디에든지 있어서 은행나무에는 해가 지는 일이 없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흔들어 대는 공룡의 꼬리가 은행나무 줄기를 감을 때 은행나무는 내가 살아 있구나 하는 깨우침을 얻어 지질시대의 삶을 구가했을 것이다. 그때의 은행나무는 바이에라 종으로 잎이 더 갈라지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 뒤 어떤 이유에서인가 바이에라 은행나무는 화석으로 사라지고 중생대 말, 백악기가 되면서 지금의 은행나무가 성해 갔다. 즉 지금의 은행나무는 1억년 이상의 긴 세월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꾸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지구상 생물 종으로서 놀라운 사실이다.

지구 상에는 그간 많은 생물 종이 나타나서 살다가 소멸해 갔다. 이 출현과 소멸로 본 생물의 평균 수명은 약 500만년이라 한다. 500만년이란 한량없이 긴 시간이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500만년의 20배도 넘는 비상한 생존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지구상의 초기의 식물은 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바다 속은 생물의 천국이었다. 땅 위에는 생명이 없는 용암의 벌판이었다. 무척 대조가 되는 상황이었다. 물은 곧 생명이었고 생명은 물이었다. 물을 떠나서 생물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모든 공간을 차지하겠다는 창조주의 명령 내지는 바람에 충실했다. 그래서 물속의 생물은 육지 침공을 계획하고 감행하게 되었다.

물속에 사는 어떠한 식물이 육지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령 은행나무가 되기 위해서 몸의 구조를 정비하고 있었는가. 모두들 녹조(綠藻)가 육지 식물의 선조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포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는 데 있다. 즉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든가 광합성을 하기 위한 엽록소 a 및 b가 있다든가 카로틴과 크산토펜을 포함하고 있다든가 광합성을 해서 생긴 녹말을 저장한다든가 하는 점이 공통되어 있고 다른 조류(藻類)는 이러한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육상 식물은 녹조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그것은 육지 위에 나타난 결과 얻어진 이차적(二次的)인 것으로 기본은 물속 시대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녹조가 육상으로 진출해서 일대 혁신을 거쳐 은행나무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그것은 물 속 식물은 암컷의 난

자와 수컷의 정자를 물 속으로 내보내어서 물속 정반이가 이루어지는 체제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으로서는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없었다. 난자가 물 속으로 방출되어 수정이 된다는 것은 무척 원시적인 방식이었고 그것으로 지상에서는 자손을 남길 수 없었다. 그래서 암컷의 난자는 난자를 담고 있는 세포 안에서 수컷을 기다리고 그를 초대해서 만나는 그러한 몸가짐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다.

처음에는 난자가 낫을 반쯤 밖으로 내밀다가 그 뒤에는 다른 세포로 둘러 쌓인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 정자가 들어 오도록 했다. 말하자면 난자는 보호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서 거친 육상의 환경에서 자손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을 해낸 것이 녹조였다. 다른 조류 가령 홍조, 갈조 등은 이러한 몸 채비를 못했기 때문에 육상 진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 몸 속에서 정자를 받아 만들어진 어린 생명체를 우리는 배(胚)라고 말한다.

육지로 올라 온 식물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몸 안에 유관속을 가지게 되었다. 유관속은 땅 속의 물을 식물체의 윗쪽까지 운반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유관속이 있음으로 해서 식물은 높게 자랄 수 있었다.

은행나무, 소나무, 낙엽송, 향나무, 주목, 소철 등을 우리는 나

자식물로 말한다. 그 중 소철과 은행나무는 가장 원시적인 성질을 간직하고 있다. 즉 은행나무의 경우는 꽃가루의 화분관이 난자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조직 즉 주심(珠心)을 뚫고 들어 가고 난자 가까이 가서는 화분관의 끝이 터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여러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정충이 난자를 찾아가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꼬리를 가진 운동성의 정충을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속 시대의 생활상의 몸가짐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나무 이외의 나무로서 이러한 정충을 가진 것은 없다.

은행나무에 있어서의 화분관은 암컷의 세포로부터 양료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나 소나무류와 같은 구과식물(球果植物)의 화분관은 난자를 향해서 자라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수컷의 생식세포를 난자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으로 말한다면 소나무 쪽이 은행나무보다 훨씬 더 발달한 단계에 있다. 3억년 보다도 더 이전에 설계된 은행나무, 다분히 물속의 녹조의 몸차림을 설계의 기본으로 하였다고 생각되는 은행나무의 고풍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육지는 나무들로 점령당하기 시작했고 나무는 지구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서 드디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나무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4. 경기도 이천군 모기면의 은행나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더 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봄날 갑자기 경기도 이천군 모기면에 있는 은행나무 노거목이 죽게 되었으니, 그 나무를 살려 달라고 전갈이 왔다.

사연이 다음과 같았다. 모기면 어느 마을 앞에 수백년생으로 추정되는 굵은 은행나무를 어떤 밥상(食床) 제작자가 줄기를 오려내어 그 나무를 죽게 한 뒤 그 나무를 손에 넣어 많은 밥상을 만들어 돈을 벌기로 하고 나쁜 짓을 감행한 것이다. 은행밥상이라 하면 무척 고급스러운 것이고 행세깨나 하는 집안에서만 마련할 수 있는 고가품이었다. 이 은행나무가 죽게 되면 많은 밥상 재료가 얻어질 수 있었다. 말로는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일 것이라고 추측이 갔으나 그 사람이 워낙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설불리 손을 댈 수도 없어서 쉬쉬했고 요컨대 마을 사람들이 대를 이어 오면서 함께 살아 온 이 유서 깊은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든 살리고자 해서 나에게 연락이 된 것이다.

그때 이천군민이 이 나무를 살리겠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이천군 경찰서의 짚차를 나에게로 보내왔기에 나는 그 현장을 예비답사했다. 줄기를 돌아 가면서 깊이 3~4cm로 그리고 길이 30~40cm이고 예리한 연모에 의해서 목질부가 제거되어 있었다. 그대로 두면



▲수술이 성공된 은행나무. 경기, 이천, 모기면. 1962. 6.

이 나무는 도저히 살아 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나는 다리접(橋接)을 해서 상처부위를 뛰어 넘는 상하 건전부 조직의 연결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일단 수원으로 되돌아 와서 나는 교접에 필요한 은행나무 가지, 그것도 생기 있고 곧은 것 그리고 잔가지가 적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찾아 다녔다. 그때 마침 잠업시험장 구내라고 생각되는 곳에 20~30년생의 은행나무가 있었고, 쓸만한 휘추리의 가지가 많아서 끊어 쓰기로 하고 그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시험장 당국에서 흔쾌히 응해 주었다. 이 은행나무의 휘추리 가지를 50~60개 끊었고 다시 이천에서 짚차를 보내 왔기에 나는 일종의 설레이는 느낌마저 가지면서 현장으로 갔다. 상처 받은 조직을 오려내고 나는 자신있게 조직 연결 수술을

했다. 한 나무에 20~30개의 가지를 써서 시술을 했다.

그 뒤 마을 아이들이 장난삼아 연결된 가지를 만져 볼까해서 얇은 양철판(그때 도당으로 말했다)을 덮어 못질을 해서 수술한 자리를 보호했다. 그뒤 이 수술은 성공을 거두었다. 아마 우리나라 수목 수술의 초기 작품으로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늙은 나무의 교접(다리접)수술의 보기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죽어 가는 은행나무를 살렸다는 뿌듯한 감격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5. 은행나무의 성 전환(性轉換)

성전환이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나 그 본 뜻은 이때까지 암컷이었던 것이 갑자기 수컷으로 변하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게 되었을 때 그 현상을 성전환이란 말로 표현한다. 식물에 있어서는 더러 있는 현상이나 동물에서는 잘 들어 볼 수 없는 것 같다. 나무에 있어서는 꽃눈이 만들어지는 어느 시기에 온도처리를 함으로써 수꽃으로 될 것을 암꽃으로 또 암꽃으로 될 것을 수꽃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전환은 사람의 환경조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초본식물에서도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나는 강화도 전등사를 몇 번인가 찾은 일이 있다. 그 중 1977년

7월 21일 서울 신촌 로터리에서 버스를 타고 김포평야를 지나고 강화대교를 건너 전등사로 갔었는데 전등사앞 숲에는 오래된 비목나무가 많아서 특이한 느낌을 주었다. 그밖에 때죽나무, 서어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팔배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등이 주인노릇하는 수종들이었고 그밖에 다수의 수종들이 섞여서 자라고 있었다.

범종각 바로 앞에는 큰 단풍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고 수고 약 15m 그리고 지표면에서 약 2m높이 되는 곳에서 줄기가 12개로 갈라져 있었다. 아름답기가 한량 없었다. 그곳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고 팻말에 쓰기를 수고 30m, 줄기둘레 8m, 추정수령 670년생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 쯤으로는 약 700년생이 되는 셈이다. 그곳 스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조선조 때 불교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승려들에게 골탕을 준 모양이고 전등사에서서는 이 은행나무가 암나무여서 은행 알의 공출이 가혹했었다고 한다. 부과된 양을 다 공출하자면 다른 곳까지 가서 은행을 사서 보충 공출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안 한 고승이 이 나무에 기도를 올려 수나무가 되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부탁을 했더니 나무가 알아차려서 수나무로 변신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은행 알 공출로 승려들이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강화도 전등사의 은행나무.
1992. 7. 9.

전등사의 은행나무는 나이가 오래되어 그 모습이 줄기에 나타나고 있다. 뚫어진 줄기의 구멍은 긴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흔적이고 크고 작은 무수한 용기는 삶을 향한 정기(精氣)의 폭발로 보아야 한다. 이 나무에서 늙음의 존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고 이것은 인간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다.

은행나무 성 전환의 이야기는 서울, 혜화동 성균관대학교 옆 문묘 안에 있는 큰 은행나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한 그루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곳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은행나무 네 그루가 서 있는데 왜 한

그루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다른 나무들은 소외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여튼 신기하게도 이 네그루의 은행나무는 모두가 수나무이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오래된 은행나무는 대개가 암나무인데 이곳 네 그루가 수나무인 것은 다시 한번 신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연에 의하면 이 나무들은 원래 암나무였던 것이 역시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수나무로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즉 암나무일 때 은행이 많이 열려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분탕을 이루었고 돌팔매질을 해서 은행을 따고 또 떨어진 은행은 고약한 냄새를 풍겨 성균관의 위엄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돼지머리를 놓고 치성을 올려 수나무로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들 이야기는 모두 은행나무의 성 전환에 관련된 것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과학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줄거리에 더 비중을 두어 이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싶은 것이다.

6. 행단(杏壇)과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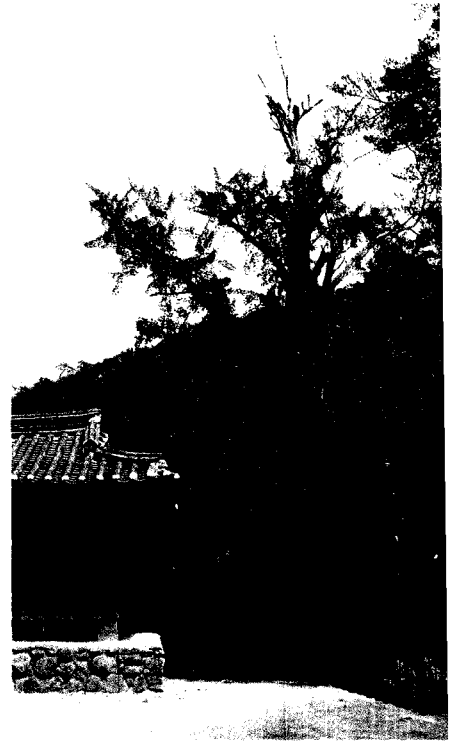
“행(杏)”자는 살구나무 “행”으로 읽는다. 행단은 사전에 보면 중국 산둥성 곡부(曲阜)현에 있는 공자의 묘 앞에 있는 단의 이름이라고 한다. 공자가 이 단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하였다고 해서, 행단이라 하면 학문하는 곳을 뜻하게 되었다. 그 단에

꼭 살구나무가 있어서 그러한 명칭이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행단에 살구나무를 관련시키기보다는 은행나무를 두어 강학(講學)분위기에 엄숙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살구나무에도 큰 것이 있기는 하나 큰 나무가 적고 또 그늘이 짙지 못한 결점도 있어서 문묘라든가 서원이라든가 학교 등에는 은행나무를 쌍으로 심어 장엄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경북 순흥에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사액(賜額)서원으로 이름나있는데 이곳에도 은행나무가 심어져 서원의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공부하는 분위기에 무게가 있으면 인간도 더 무게 있게 되고 그러한 인간은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 더 무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앞에 말한 서울의 성균관에도 은행나무가 쌍식(雙植)되어 있어 행단이다.

서울시에 가까운 하남시(河南市) 교산동에 광주향교가 있고 이곳에 여러 그루의 은행나무가 서 있다. 표지판에 의하면 수령 900년, 수고 36m, 뿌리목 부근의 줄



▲소수서원의 은행나무. 1988. 6. 10.

기둘레 9.3m의 나무가 있고 도목(道木) 번호 5-111호로 되어 있는 나무는 수령 500년, 수고 31m, 뿌리목 줄기둘레 9.3m로 되어 있고 5-112호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위풍당당함에 고개가 숙여지는데 다만 보호관리 상태가 다소 허술한 느낌이 있었다. 더 좋은 보호가 되어

표 1

	명륜당 뜰에		대성전 뜰에	
	동쪽나무	서쪽나무	동쪽나무	서쪽나무
수 고(m)	21	20	25	20
뿌리목둘레(m)	-	-	13	13
흉고둘레	12.2(三幹合計) 7.1(單幹)	7.2(三幹合計) 4.2(單幹)	-	-

*천연기념물 제59호

야 할 것으로 보았다.

서울 문묘의 은행나무에 대하여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곳에는 명륜당(明倫堂)앞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동서 방향으로 쌍으로 서 있고 또 대성전(大成殿) 뜰 앞에 역시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서 있다. 그 크기를 표 1에 요약해 보았다.

표 1에 보이듯이 명륜당 뜰에 서있는 은행나무는 땅에서부터 3간성(三幹性)이고 두 나무는 약 10m의 거리로 떨어져서 서 있다.

이와 비슷한 행단은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7. 은행나무와 유주(乳柱)

은행나무는 결가지에서 땅으로 향하는 긴 돌기를 발달시키는 성질이 있다. 특히 기후가 온난다습한 일본의 은행나무는 이러한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그 길이가 때로 1m를 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그 것을 젓(乳, 일본어 지찌)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은행나무의 별명이 젓나무(지찌노끼, 乳木)로 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유주(乳柱, 젓기둥 또는 기둥 모양의 젓)로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애기 없는 여자들이 유주에 기도를 올려 애기 얻기를 소원하고 또 산부가 젓이 부족할 때에도 이에 치성을 드리는 습속이 있다 한다. 일본에서는 이



◀ 전주 향교의 은행나무.
1982. 4. 12

유주를 여성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점이 다소 다른 것 같다. 애기 가지기를 소원하고 젓의 분비량이 많기를 바라는 것은 일본이나 비슷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오히려 남성의 상징물로 보고 그것을 잘라다가 끓여 국물을 마심으로서 잉태를 소원한 경우가 있다. 나는 이것을 서울 시내 방학동(放鶴洞) 은행나무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선단부가 절단되고 있었는데 어떤이는 그 국물을 마시면 남자의 정력이 강해진다고도 했었다. 모두 허황된 근거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을 젓으로 보고 치성을 드린 곳이 있다. 1995년 1월 17일 나는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답사한 적이 있다. 결가지에서 두 개의 작은 돌기가 생겨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이곳에 치성을 드리러 오는 부녀자가 지금에도 있다 한다. 이에 빌면 젓이 잘 난다고 한다. 그 돌기는 그다지 큰 편은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은행나무 유주로써 가장 크고 장관인 것은 서울 문묘의 은행나무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젓으로 보기보다는 남자의 성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보아 온 것이 아닌가 한다. 한 번 구경할 만하다. 전남 별교에 큰 은행나무가 있고 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것이나 관리하기가 어렵



▲은행나무의 유주 (첫). 서울 문묘구내. 1991. 11. 1.



▲ 끊어진 유주. 서울. 방학동. 1993. 7. 16.

다해서 지정을 해제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 은행나무에도 작은 유주가 여러개 발달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은행나무 유주를 잘라서 고아 국물을 마시는 습속은 있었다고 듣고 있다. 인간은 어디에서 살거나 자연물을 보고 생각해 보는 길은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일로 나무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8. 금산 행정의 은행나무

1992년 2월 9일 일요일 나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기로 하고 떠났다. 이 나무는 수령 1000년으로 추정

되는 천연기념물 제84호인데 크기로는 경기도 용문사의 것 다음으로 크다고 한다. 그때 나는 전북 이리에서 살고 있었다.



▲은행나무 목재로된 지장보살. 전북 금산사. 1996. 10. 12.

오전 9시 반 나는 버스를 타고 삼례, 대둔산을 지나 11시 반에 금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금산에서 추부면 마전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것이 정오경이었고 날씨는 쾌청했다. 은행나무가 있는 곳까지 택시가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나무는 나에게서 너무 큰 나무로 비쳤다. 나무가 이렇게까지 굵게 될 수 있는 건가 하고 망연자실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나 할까? 그 나무는 너무 컸었다.

원 줄기는 땅위 2m쯤 되는 곳에서 절단되어 있었다. 그간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 줄기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흰 종이 조각이 꽃혀 있는 것을 보면 얼마 전에 이 나무에 동민들이 제사를 올린 것이 틀림없다. 이 나무는 그 마

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신목으로 되어 있다. 일제 시대에 측정된 이 나무의 수고는 32m였는데 지금의 높이는 20m로 되어 있어서 그간 세월을 보내면서 다소 노쇠의 길을 걸어 온 것 같았다. 이 나무에는 까치집 두 개가 있었다. 옆에는 행정헌(杏亭軒)이라는 목조 건물이 있었다.

마전에서 택시 왕복요금 3000원으로 족했다. 지금은 요금이 다소 더 올랐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은행나무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우리 둘레에 서 있다.

9. 은행나무의 변종

가령 서울시내에는 가로수로서 곳곳에 은행나무가 심어지고 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이들 나무를 보면 그모양에 변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지가 뻗어나가는 각도에 있어서 거의 수평적인 것이 있는가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솟아오르는 빗자루형의 것이 있다. 또 가지가 유난히 짧은 것이 있는가 하면 긴 것이 있다.

이처럼 은행나무는 가지의 특성에 있어서 변화가 많다. 말하자면 분지성변종(分枝性變種)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로수는 기하학적, 즉 도형적이고 인공적인 미로 다루어진다. 한줄로 그것도 비슷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선다.

그래서 가로수는 한나무 한나무의 모양이 비슷할 때 돋보인다.



◀ 빗자루 은행나무.
경복궁내.
1994. 3.

들죽날죽해서는 못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은행나무는 가지퍼짐이 같은 것을 골라 가로수로 심어야 한다. 빗자루모양의 은행나무만으로 가로수를 만들었다면 극진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물론 길바닥에 던져주는 녹음의 양은 적을지 모르나 그 신기한 형태가 자아내는 정돈된 미는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서울거리를 보면 여기까지 신경을 쓴 가로수는 없는 것 같으나 우리시민의 욕구는 어느 때인가 이것을 충족시키고야 말 것이다. 특이한 분지성품종을 골라 꺾꽂이로 다량의 묘목을 키운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어머니나무의 모습

을 닮을 것이다. 즉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세종로네 거리를 지나면서 빗자루은행나무의 가로수 한그루를 볼 수 있었다. 바로 옆에는 가지가 옆으로 펼쳐진 것이 서 있었다. 이들은 이웃해서 서 있으면서 서로의 혈통과 족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그들의 이러한 대화를 듣지 못하고 있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빗자루은행나무는 돌연변이로 생긴 혈통으로 아직까지 그들의 수는 많지 않다.

나는 경복궁 뜰안에 서 있는 빗

자루은행나무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나무는 증식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흔히 빗자루은행나무는 수나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관찰대상이 된다.

10. 환경오염과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비교적 오염된 환경에 처방하는 힘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한계내에서의 문제이지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면 죽게 된다. 나는 1975년경 덕수궁 내에 서 있는 은행나무의 수세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때 궁내 큰 은행나무아래 포장마차 집이 있었고 길가에는 시민들이 이곳에 들러서 소주 몇잔에 오뎅국물 마시고 덕수궁의 분위기에 취하는 맛을 즐겼다.

지금으로 본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찌해서 궁안에 포장마차집이 줄이어 들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곳 장소의 사용료를 납부했을 것이고 덕수궁은 그수입의 짝짤한 맛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부조리가 추방되고 말았다.

문제는 은행나무 노목 아래에서 영업을 하던 그들 포장마차집들은 각종 폐수와 오물을 주변에 마구 버렸던 것이다. 심해진 토양오염으로 천년을 바라보던 은행나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나무 옆에서 있었던 회화나무 노거목도 동시에 오염물질의 제물

▶ 대기오염과 은행나무.
1975. 9. 14.



▼ 은행나무의 오염피해.
덕수궁내 소견.
1975. 9. 23.



이 되어 죽어 갔다.

이들 나무를 죽이고 나서 포장마차집들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덕수궁 내의 술취정군들도 다른 곳으로 발을 옮겨야 했다. 인간들은 이처럼 무분별한 행동으로 수백년의 귀중한 역사를 단숨에 쓸어 없애고 말았다. 노거목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종로 화신앞 네거리부근에도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다. 여기 1975년경에 찍은 사진을 보인다. 9월 중순 이전부터 몇그루의 은행

나무는 밑이 더러운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마 아황산가스, 먼지, 그리고 토양건조 등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가담해서 그와같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잃어져가는 서울도심의 푸름을 시민들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 세계의 인류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고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무척 잘못된 것이다. 우리 스스로 깨쳐서 고민해야 한다.